

부산진구의 신발 현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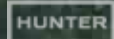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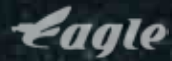
부산진구는 신발로 먹고살았다. 동네마다 신발공장이 있었고, 신발공장 다니는 사람도 꼭 있었다. 1960년대 부산진구 신발은 '한국 대표'였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신발 대기업 7곳 중 6곳이 부산진구에 있었으니 말 다 했다.

MONTHLY KOFA

코파의

심

Tel. 021-5579728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Ruko Pinangsia Blok B-28, Karawaci Office Park



Vol. **44** 2018/05

부산시 동남아시아 신발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KOFA 방문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약회(KOFA), 부산시 간담회전 기념촬영

지난 21일 부산시에서 동남아시아 신발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재인니 한국 신발협약회(KOFA)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방문은 2박4일의 일정으로 19일 베트남 신발기업 방문 및 간담회를 거쳐 인도네시아의 방문 일정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KOFA의 많은 기업대표가 참석해 한국 신발산업의 비전에 관한 논의를 했으며 특히 해외출장중인 KOFA 신판기 회장은 유선상으로 한국에서 스마트팩토리가 가능하고 부산시에서 원한다면 기술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관심을 보였다.

현재 신발산업은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전세계 신발의 88%를 생산하는 세계 신발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는 200여개, 300여개의 한국신발기업이 진출해 NIKE, Adidas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OEM 생산을 하고 있다.

이번 출장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대표기업(대부분 부

산이 본사)회장단들을 만나 현지 경제여건 및 부산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부산시 지원 역할 등을 파악하고, 두 국가의 해외 현지 기업들의 협회, 조합 등 자생 협력조직 존재 여부 확인 후 자체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키 위한 방문이었다.

또한 부산에서 진출한 현지 신발기업의 물류, 유통,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에서 부산시의 역할 또는 지원방법을 찾고 신발제조공정의 대규모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는 인도

네시아, 베트남의 현지 공장을 방문, 여론을 수렴해서 『신발 지능형공장 구축사업』(2018~2020,230억) 추진 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용 가능한 선진적인 자동화시스템 개발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방문이었다.

이번 방문을 통한 기대는 해외진출 국내신발기업 인도네시아, 베트남 거점 네트워크 구축

(인도네시아,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의 『한국신발산업협회』 공식 창단) 활용해 상호 교류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 지원과 해외진출 국내 글로벌브랜드 OEM생산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해외 판로 개척활용해 핵심 단체설립 네트워크 구축[인도네시아(재인니한국신발협약회) : 교류협력지원, 베트남(재베트남한국신발협약회) : 교류협력

지원위한 단체설립지원, 기타 국가(해외한국신발협약회) : 교류협력지원]의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글로벌브랜드 생산기업에 대한 국내기업 제품설명회 개최, 바이어 상담회 개최, 세미나 개최 등 교류사업 추진시 네트워크 활용하고 협의체 설립 이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동남아 진출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의 기회를 가져올수 있을것으로 본다.

베트남 신발협약회는 다가오는 6월 29일 호치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초대회장으로는 성현비나 이영만 회장이 취임할 예정으로 있다.



▲부산시, 베트남 신발협약회 기념촬영

셈콕, 서울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투자 세미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G2(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파트너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필두로



하는 남동부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더욱이 심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더 나은 관계 및 세계 제4대 경제 지역인 아세안과의 경제 영향력을 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한국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는 현재 3개국(베트남(46%), 싱가포르(23%), 인도네시아(13%))에 집중되어 있고,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6년도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60억 달러 중에 50%를 상회하는 비율이 제조업 분야로 집중되고 있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이러한 계기를 맞이하여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이 된 싱가포르를 대표하여 싱가포르의 투자/개발 전문기업인 셈콕(Sembcorp Development)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베트남 투자 그리

고 전략적 제조업 지역”이라는 타이틀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세미나실 B에서 4월 26일 2시부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각 국가의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진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였다.

셈콕은 싱가포르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기반사업, 해양사업 그리고 신도시 및 공단개발 사업에 있어 선두 기업이다. 한 해 기업의 매출이 62억 달러에 달하고 현재 16개국에서 약 7,00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기업이다.

셈콕 그룹의 메인 사업은 기반산업, 해양산업 그리고 공단 및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그중 공단 및 신도시개발 사업 분야는 아시아 개발사 중에 선두로 강력한 정부의 지원으로 14개의 지역을 개발하였으며, 규모는 약 11,000헥타르 (3천3백만 평)을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베트남에 걸쳐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위 4개 국가에 총 30개국의 투자자로부터 약 895개의 프로젝트, 금액으로는 23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문의처: 전화: (82) 10 9081 0424 출처: Sembcorp Development



PT. JEONGSUK TECH ABADI

Since 1996

Contractor Engineering Electrical & Supplier

“정직한 기술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Tel & Fax : (021) 5566 2989 • Email : baeksy68@hanmail.net • MB : +62 811 903 144
Jl. Sawo Raya 19B, Kel. Cibodasari, Kec. Cibodas Perumnas 1 Tangerang Banten 15138

“올해 라마단과 르바란 연휴 이렇게 진행된다”

정부, 르바란 대체휴무일 당초보다 3일 추가... 실제 르바란 휴무 총 12일

라마단 금식 시작일 5월 17일 전망

이슬람교도의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들피트리) 대체휴일을 당초 4일에서 3일을 추가함에 따라 총 7일로 확정했다고 18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이슬람력 1439년) 르바란 연휴가 실제로 6월 9일(토)부터 시작돼 6월 20일(수)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르바란 법정공휴일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앞서 정부 당국은 지난해 9월 22일 대체휴일 관련해 종교부·인력부·행정개혁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장관령을 발표하고, 르바란 대체휴일을 르바란 법정공휴일인 6월 15일과 16일 전후로 각각 이틀씩 총 4일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지난 4월 18일 개정된 공동장관령을 발표했다. 4일간 대체휴일에 6월 11일(월)·12일(화)과 6월 20일(수) 등 3일을 추가해 대체휴일이 총 7일이 됐다.

이날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 인력개발·문화조정부 부안 마하라니 장관은 대체휴일 3일 추가와 관련해 “르바란 귀성과 귀경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슬람력 9월이며 성월(聖月)인 ‘라마단’은 오는 5월 17일(목)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기간 이슬람 신자들은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과 금욕 생활을 하며 신앙심을 되새긴다.

라마단과 르바란 개시일은 종파마다 역법의 계산방법이 달라 하루 이틀 차이를 보일 때도 있으나 올해는 동일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국가항공우주연구원(LAPAN) 토마스 자말루딘 소장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라마단과 르바란 시작일이 동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둘라똘울라마(NU) 등은 육안으로 초승달 관측 결과를 토대로 라마단과 르바란 시작일을 확정하는 반면, 제2위 이슬람단체인 무하마디야는 ‘히삼’이라는 천문계산법으로 이슬람 축일을 확정·발표해 축일 시작일이 하루 또는 이틀 차이가 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18일 폼빠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들피트리(르바란 6월 15~16일)에 따른 유급휴가대체일(Cuti Bersama)을 3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6월 11일과 12일을 귀성 완화책의 일환으로 유급휴가대체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6월 20일까지 포함해 유급휴가대체일은 당초 4일에서 7일로 확대됐다.

종교부, 노동부, 국가행정개혁부의 3개 부처는 이날 공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공포했으며 유급휴가대체일 변경에 관해 공동 서명했다.

이로써 올해 르바란 이들피트리 연휴는 사실상 6월 9일(토)부터 시작돼 6월 20일(수)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올해 르바란 연휴 ‘최대 12일’로 확대 ... 업계는 반발



르바란 법정공휴일은 6월 15~16일 양일간이다. 이날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 부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력개발문화부장관은 유급휴가대체일 추가와 관련해 “르바란 휴가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했다. 부디 교통장관도 “국민이 휴가 일정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영 철도 그레타 아베 인도네시아(KAI) 및 항공사 측도 귀성객의 증가에 대비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아디 회장은 이날 “산업계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번 정책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리아디 회장은 “정부 기관이 모두 쉬면 수출 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일이 지연된다”고 지적하며 “르바란 유급휴가대체일은 르바란 전후로 이틀씩 4일이면 충분하다”며 강조했다.

한편, 올해 르바란에 따른 유급휴가대체일은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2015년, 2016년은 각각 3일, 지난해에는 4일이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올해 인도네시아의 공휴일은 기존 공휴일 16일과 유급휴가대체일 8일로 총 24일이 됐다.

올해 세계 신발시장 점유율 3위 달성 목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신발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4위에서 올해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위 3개국인 중국과 인도, 베트남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

업부 패션공예품 중소기업국의 랏나 국장은 “현재 세계 점유율 3위인 베트남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발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2009년에 설치된 인도네시아 신발산업 진흥센터를 통

해 장인의 기술 향상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라고 언급했다.

패션공예품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세계 신발의 86%는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80%가 중국에서 나머지 6%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발 생산량은 연간 11억 켈레에 달한다. 이 가운데 8억 켈레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는 유럽과 미국에 수출되고 있어 연간 12억 켈레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베트남에 비해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SunStar

Indonesia Semarang Promotion
2018.02.01 ~ 03.31

- ▶ 무상순회 AS [공장별]
- ▶ 정품 부품 할인 판매 [한시별]
- ▶ 봉제 생산정보 [SDMS 설명]



PT. SUNSTAR MANDIRI INDONESIA



PT. SUNSTAR MANDIRI SEMARANG OFFICE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국회, 외국인 고용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인도네시아 국회가 뜨거운 정치 이슈로 부상한 정부의 외국인 고용 관련 정책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3월에 조꼬 위도도 (일명 조꼬위) 대통령이 외국

라며,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들리 존 국회(DPR) 부의장은 26일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논의할 특별위원회(Pansus)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모노왈리 특별경제구역(SEZ)에서도 중국인노동자의 취업 규정 위반 문제가 대두됐다.

국민수권당(PAN) 소속 라오드 국회의원은 “기존 규정에는 외국인의 경우 숙련 노동자만 취업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모노왈리 지역에서는 트럭 기사도 외국인이다” 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외국인취업비자(IMTA)와 외국인취업계획(RPTKA)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지난해 8월에는 남동술라웨시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 742명 중 210명이 IMTA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추방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관한 대통령령 No20/2018에 서명했다.

2억6천만명 인구의 인도네시아는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최근 경제개방과 함께 외국인 인력이 밀려들어오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다.

조꼬위 대통령은 25일 대통령령 No20/2018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인력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126,000명이다.

쁘라모노 야농 국무장관은 비자와 취업허가 취득 절차를 단순화한 규정을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포 산업장관은 25일 대통령령 No20/2018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인도네시아노조연합(KSPI)의 사잇 이끄발 회장은 새 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길이 열었다며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2016년에 불법취업 중국인 노동자가 동부자카르타 할림빠르다나꾸수마공항 영내에서 허가없이 측량작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프로젝트를 시행하는 PT 위자야카르아(Wika)의 합작사인 PT 지오 센트랄 마이닝 소속 중국인 기술자와 조사원 5명과 인도네시아인 운전기사 2명이 허가 없이 공항 영내에서 철도 건설과 관련해 토양 샘플을 채취하다가 걸려서 불법취업과 군사시설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중국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정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 도입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택스 홀리데이(일시 면세 조치)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35호’ 에서 제외된 5,000억 루피아 미만의 중소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조정청(BKPM)의 토마스 램봉 청장은 “중소투자자에게 세금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현재 택스 홀리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전체 업종 중 1%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와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협회장은 “토마스 램봉 청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라며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우대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국제관계 담당 신타 캅다니 부소장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투자가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교통부, 아시안게임 교통정체 완화 위한 규제 제안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기간(8월 18일~9월 2일) 동안에 실시할 몇 가지 교통규제를 제안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주 운수국의 시깃 부국장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선수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 선수단 이동 시간대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폐쇄, (2) 현재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트럭의 통행규제 적용 구간 확대, (3) 자카르타 모든 고속도로에 차량출입제 실시, (4) 현재 자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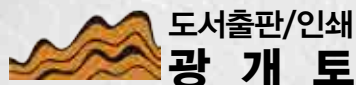
타 외곽 고속도로에도 실시되고 있는 차량출입제 적용 구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라고 말하며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라고 언급했다.

채택된 교통규제는 경기가 열리는 자카르타의 모든 도로와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시깃 부국장은 이어 “이 가운데 4번째 방안은 서부 자바주 보고르의 자고라위 고속도로에도 지난 16일부터 시행

실시됐다. 반푼 땅으랑 고속도로에는 이미 도입됐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카르타의 산디아가 부지사는 “이날(6일) 교통부 산하의 자카르타수도권교통청(BPTJ)이 앞서 공개한 수디르만 거리 등 주요 도로에 차량출입제 규제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오전 6시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체증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하며 “자카르타주정부와 BPTJ가 이에 대해 조정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전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기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관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인니 중앙은행, 통화가치 급락에 시장개입 ... 금리인상 ‘만지작’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급락세를 이어가자 중앙은행(BI)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개입에 나섰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구스 마르토파르도조 BI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BI는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루피아화 약세 압력이 계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4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



▲2018년 4월 26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아구스 마르토파르도조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 움직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실제로 BI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높이는 셈이 된다.

BI는 세계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내수 수요를 진작해 경제발전 모멘텀을 유지할 목

적으로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7.5%에서 4.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루피아화는 올해 초부터 급격한 약세를 보여왔다.

1월 말 달러당 1만3천300루피아 내외였던 자카르타 은행간 현물 달러 환율(JISDOR)은 4월 말 현재 달러당 1만3천930루피아로 630루피아(4.7%) 이상 상승했다.

BI는 루피아화 약세가 더욱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자 최근에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구스 총재는 지난 24일 루

피아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BI가 꽤 상당한 규모로 자국 국채를 매입하고 외화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보유 외환은 3월말 기준 1천260억달러(약 135조7천억원)로 전월보다 60억 달러(약 6조4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구스 총재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율이 당국의 목표 범위에 머물러 있고, 경수수지적자도 3% 미만으로 억제되면서 올해 5.1~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작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1%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의 2018년 GDP 성장률이 5.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ZERO
100% oil free
Class 0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COAIRE
COMPRESSOR
www.ekyungwon.co.kr

경원 콤프레샤는?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한 압축공기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 경원 콤프레샤

KYUNGWON
COMPRESSOR

Air Compressor & Equipment

스크류 공기압축기 스크롤 공기 압축기 오일프리 공기 압축기 왕복동식 공기 압축기 애프터 쿨러 에어 드라이어 에어필터 에어탱크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MR. Kim : +62 811 932 689
MR. Seo : +62 858 8042 4638
E-Mail : kimb160@gmail.com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948
MR. Lee
Mobile : +62 811 105 957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www.dbkw2000.com



▲부산 신발산업의 전성기 때 부산진구 태화고무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는 근로자들 모습. 부산진구청 제공

이 있다.
 연구원 아닌 문학가가 자료 조사를 토대로 그 영광을 기술한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야기는 일본 고무신이 조선에 들어와 신발산업을 태동하게 한 1910년대부터 시작한다.
 일본계 기업과 향토자본이 각축하며 일으킨 부산 고무산업 붐과, 그로 인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신발산업을 탐구했다.
 1970년대부터 누린 산업의 영화와 과잉생산, 자체 브랜드 부재, 경기 악화 등으로 서서히 쇠퇴한 신발산업의 개요를 다뤘다.
 중반부터는 애기 삼아 워를 만든 글이 가득하다. 슈퍼카미트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한 대양고무와 창업주 일가 스토리, 여전히 세계적 기업인 화승그룹의 모태 동양고무와 '나이키'의 사연, 한때 부산 신발산업 그 자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삼화고무의 절정과 몰락 등이 세세하게 담겼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가능하게 하고 쇠퇴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한 신발 근로자들의 수기가 있다.

마지막에는 신발산업을 '과거'로만 남겨두지 않으려는 부산의 노력과 가능성을 비춘다.

새 신을 신고서 풀썩!
 국제신문

‘고무신에서 나이키까지’ ... 부산진구의 신발 현화가

신발산업의 역사·문화 오롯이 실제 노동자들 수기도 담아

부산진구는 신발로 먹고살았다. 동네마다 신발공장이 있었고, 신발공장 다니는 사람도 꼭 있었다.

1960년대 부산진구 신발은 '한국 대표'였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신발 대기업 7곳 중 6곳이 부산진구에 있었으니 말 다 했다.

1970년대 기술과 디자인은 더 발전했고, 세계 신발시장은 부산진구를 주목했다.

1980년대 부산진구의 신발 기술력은 세계 시장을 휩쓸었

다. 리복이며 나이키며 세계 최고 운동화가 부산진구에서 생산됐다.

1980년대 말 세계 경기가 급속히 악화됐고 1990년대는 추웠다.

부산진구 신발산업도 쇠락하고, 신발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하던 나이키 같은 곳도 변심했다. 신발공장은 폐업하거나 외국으로 옮겨갔다. 신발 대기업이 있던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부산진구 신발이야기 책

고무신에서 '나이키까지'가 나왔다.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에 선정돼 부산진문화원이 펴냈고, 동길산 시인이 썼다. 비매품이다.

국제신문이 지난해 6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다룬 부산신발 이야기('신발의 도시 부산, 그 속에 숨은 스토리')에서 '산업' 과 '근로자' 에 대한 고찰이 더 깊어졌다.

글쓴이는 말한다. "이 책은 일종의 현화가" 라고. 추억의 고무신에서 세계 최고 고

급 운동화까지 만든 부산진구 신발회사와, 그 회사에 다녔던 이들에 대한 현화가라고. 굴뚝산업이라고 핀잔받은 신발은 못 살던 시절 한국 경제를 떠받친 기둥이었고, 공돌이 공순이라 폄하했던 신발 공장 노동자는 집안을 떠받친 기둥이라고.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신발산업에 기대 한 시대를 살아낸 부산에서 신발의 의미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산업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동시대의 감성과 추억이 있고, 아빠 엄마가 신발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밥 먹고 공부한 자식 세대의 빛

ELITE3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Kendal / Park By The Bay

국제항구

국제공항

국제항구

국제공항

중부자바내 스마랑 전략적 위치

스마랑 시내

Hotel Horizon

TOL JATINGALEH KRAPYAK

Klenteng Sam Poo Kong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VSIP BAC NINH 2007
Area : 700ha(500ha IP and 200ha C&R)
Total 54 projects

VSIP HAI PHONG 2010
Area : 1600ha (500ha IP and 1100ha C&R)
Total 32 projects

VSIP NGHE AN 2005
Area : 750ha
Phase 1:279ha (198ha IP and 81ha C&R)

VSIP HAI DUONG 2015
Area : 150ha IP
Total 1 projects

VSIP QUANG NGAI 2013
Area : 1020ha (500ha IP 520ha C&R)
Total 09 projects

VSIP I BINH DUONG 1996
Area : 500ha IP
Total 238 projects - 100% occupied

VSIP II BINH DUONG 2005
Area : 2045ha IP (1345ha IP and 700ha C&R)
Total 206 projects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구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투자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



1▲Scarpa Mescalito Mid GTX

판매자들은 2018년 가을 패션에 대해 10월에 나올 라이프스타일 룩이 주목을 끌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형식 및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스노우 쇼의 2018년 1월 에디션이 35년 역사의 이벤트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버몬트 벌링튼 소재의 기어 익스체인지(Gear Exchange)의 바이어 Melissa McNell은 “새로운 쇼를 너무 보고싶고, 창조적인 새로운 제품들과 기존의 제품들도 한 데 모으는 역할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이는 주로 별도의 관점에서 나온 마케팅 쇼이고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주요 브랜드들과 관계를 다져 나가고 그들에게 ‘제품 판매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나갈 수가 있죠. 저희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측면이에요.”



2▲Cougar Dani

2 아웃도어 인사이트에서 설문 조사를 했던 상점주 및 구매자들은 금년에 북동 및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는 한파로 인해 겨울 판매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튼튼한 부츠 판매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문에 대해서는 모든 가을 계절 조건에 맞춘 아웃도어, 즉 다용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유타주 파크 시티 소재의 Backcountry.com의 제품 부서 부사장 Mimi Nuelle은 “12월 후반 세일즈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일반적인 겨울 제품 뿐만 아니라, 소렐(Sorel),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보그스(Bogs) 등의 분류에 속하는 겨울 방한 신발은 지난 3주간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라이프스타일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딱하고 무겁고 불편한 부츠는 좋아하지 않는다.”

“겨울에도 여름 때와 같이 패션을 뽐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백컨트리(Backcountry)는 부츠 및 신발에 대해 포세이크(Forsake), 대너(Danner), 팀



3▲Cougar Catania Firefly

벌랜드(Timberland)와 같은 브랜드의 기존 아웃도어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 및 스페리 탑-사이드(Sperry Top-Sider), 밴스(Vans)를 포함하는 브랜드의 비성수기 스타일과 함께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Nuelle은 “우리는 제품군에 투여된 아웃도어와 라이프스타일의 팬층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브라스카주 링컨 소재 The Moose’s Tooth의 매니저이자 바이어인 Melanie Gilbert는 그녀 가게에서는 바스크(Vasque)의 기존 부츠 스타일과 차코(Chaco) 샌들이 꾸준히 잘 팔리고 있었는데 같은 브랜드의 앞이 막힌 스타일을 들여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라이프스타일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딱하면서 무겁고 편하지 않은 스타일의 부츠를 신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4▲Oboz Juniper 6-inch

미주리주 베델 소재 트루노스 어드벤처웨어(True North Adventureware)의 주인 Jonathan Goldbert는 그의 가게에서는 카믹(Kamic)이나 메렐(Merrell)과 같은 브랜드의 네오프렌 스타일과 팩 부츠를 쪽 팔아왔는데 그 역시도 다음 돌아오는 시즌에는 다양성을 시도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겨울도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계절 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따른 아웃도어 제품 변화

존도가 높더라고요.” 라고 그는 말한다. “저는 좀 더 캐주얼 스타일을 추가로 하고 싶은데 사실 슬리퍼를 도입하고 싶어요.”

팀버 트레일의 Sexton은 그도 비슷한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제공합니다. 겨울에도 여름 때와 같이 패션을 뽐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잘 팔렸던 차코(Chaco)나 킨(Keen) 브랜드와 같은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 내년에는 전체 구매의 5%에서 10%로 방향시키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캐주얼 트렌드의 일부는 계속 인기있는 첼시(Chelsea) 부츠 카테고리에 있을 것이다. Backcountry.com의

Nuelle과 기어 익스체인지(Gear Exchange)의 McNell 모두 캐주얼 스타일이 2018년 주요 성장 아이템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블런드스톤(Blundstone)의 인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남성 및 여성을 위한 블런드스톤(Blundstone)



5▲Timberland FlyRoam Trail

의 방수단열 슬립온 제품을 정말 많이 팔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장 기회가 모두 캐주얼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McNell은 오보즈(Oboz)의 브리저 미드(Bridger Mid)와 같은 진짜 기능성 트레일 스타일도 잘 팔려왔고 사실 그

장점으로 상점에서는 메렐(Merrell)이나 킨(Keen)을 앞지른 상태라고 말한다.

또한 Nuelle은 Backcountry.com에서는 남녀 공용의 하이킹 및 백패킹 제품들이 탄탄하게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6▲Adidas Terrex Heron Mid

하지만 강추위나 간혹 폭설(겨울 허리케인이 관련 있거나 없거나)로 인해 매상이 좋지 않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라이프스타일에 배팅하는 것이 주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눈은 마법의 재료예요. 눈이 오면 우리 비즈니스는 꽤나 잘되는 편이죠.” 라고 팀버 트레일의 Sexton은 말한다. “그러나 눈이 안오면, 완전 반대로 되어버려요.”

왜 스포츠 브랜드는 아직도 트레이닝 신발 시장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상점에는 모든 스포츠 팀 브랜드들의 크로스-트레이닝 스니커즈가 진열되어 있다.

나이키의 최신모델은 메트콘 4이며 리복은 최근 나노 8을 출시하면서 이 둘은 현재 독보적인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그 어떤 브랜드도 크로스-트레이닝 애호가들을 기능적으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NPD 그룹의 선임 스포츠 분야 업계 전문가 Matt Powell에 따르면, 완벽한 다목적 운동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레이닝은 다면적인 활동입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신발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일 크로스핏을 하고 있다면, 리프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쿠션이 좋거나 좌우 움직임을 잘 잡아주는 신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트레이닝에 완벽한 운동화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서스퀘하나 파이낸셜 그룹(Susquehanna Financial Group LLLP) 분석가 Sam Poser도 이에 동의했다.

“기능을 다 갖춘 신발을 만들

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것이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들은 모든 짐(gym) 활동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기능을 갖춘 모델에 대한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

Powell은 ‘현재의 크로스-트레이닝 모델은 기능을 모두 갖추지 못했고 트레이닝 시장의 다기능 신발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특정 활동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서 ‘이 신발은 리프팅을 위한 것, 이 신발은 측면운동을 위한 것’ 등으로 말하는 것일 거구요, 희망사항은 손님이 기능별 신발들을 몇 켤레 소장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오늘날 소비자는 ‘여러가지 경우에 다 신을 수 있는 다용도 신발을 원해요’ “트레이닝 신발 추세는 수년 동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닝 분야가 모든 브랜드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리복 크로스핏 나노 8



▲나이키 메트콘4 “Invictus”

아니다.

“실제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트레이닝 분야입니다. 운동을 할 때 무엇을 신느냐이죠, 우리는 트레이닝 분야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한 해를 보냈어요, 구체적으로 디크 스포츠 용품이 있죠.” 라고 아디다스 북미 지사 대표 Mark King은 3월 14일 브랜드 실적 발표회에 앞서 풋웨어뉴스에 이렇게 설명했다.

Poser는 트레이닝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브랜드들에게 그 분야에서 과연 충분히 표현하려고 신경이나 썼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다.

“저는 브랜드들이 그 숙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들이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목받는 신발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과연 더 나은 트레이닝화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처: Footwear news



이나 혼합 무술 같은 휘트니스 분야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대한 탄력을 얻었지만 러닝화는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그다지 러닝화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라고 Daley는 인정한다.

2015년 리복 리더십이 모든 브랜드가 휘트니스 분야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러닝화에 대한 중추적면서 단호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서 초기 전략은 바뀌게 되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라고 Daley는 말한다.

“사실 매우 단순했어요. 우리는 그 분야에서 신뢰를 얻어야만 했던 거예요.”

최우선과제는 그냥 단순히 또 하나의 러닝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그 누구도 러닝화 분야에 또 하나의 브랜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라고 Daley는 말한다.

그러나 1909년에 첫 러닝화를 만들었던 리복은 재빠르게 지금의 러닝화 분야가 수년 전 자신들이 거부했던 그 때 상황과는 다름을 인지했다.

어떻게 러닝화가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소 단련된 경험과 굳은 믿음으로 최소 표현주의에서 최대 표현주의로 확장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양한 경험을 비춰보면 해결책이 하나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Daley는 말한다.

“한 방향에서만 보면, 오늘날 채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적이지만 또 훨씬 많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제품은 널리 퍼진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다양한 경험을 비춰보면 해결책이 하나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Daley는 말한다.

“한 방향에서만 보면, 오늘날 채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적이지만 또 훨씬 많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제품은 널리 퍼진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리복은 제품 관리, 디자인 및 개

리복이 러닝화로 돌아오다

발 집중 실현을 통해 자유로워졌으며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플로트라이드런(Float-ride Run)이다.

2017년 4월 \$150의 가격으로 출시된 이 신발은 전매특허 품, 양말과 유사한 발등 부분, 그리고 유선형 디자인이 그 특징이다.

“플로트라이드는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이 독창적이고 우수했다고 정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라고 Daley는 말하며,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리복이 독자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제품을 가지게 되었음을 입증했다고 언급했다.

“플로트라이드는 리복에게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시카고 근교 나퍼빌 러닝 컴퍼니(Naperville Running Company) 3개 지점을 운영하는 Kris Hartner는 말한다.

“이 제품은 아주 뛰어난 차별화된 상품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들여왔습니다.”

리복은 비싼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플로트라이드런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 대신 “지상 게임”을 도입했다. 회사는 영업사원부터 러닝 코치에 이르기까지 1,200여명의 영향력 있는 마케팅 부대에 신발을 공급했다. 이들은 리복의 지상 홍보대사들이 되었다.

단 3개월 만에, 리복의 플로트라이드런은 러너스 월드(Runner's World)로부터 2017년 여름 신발 가이드에서 “베스트 데뷰” 상을 수상하면서 회사에서 최고로 잘 팔리는 신발 모델로 등장했다.

“우리는 시장에 들어가는 계획과 거기서 얼마나 얻을 것인지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 레이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Daley는 말한다.

“그것이 제가 지난 20년 넘게 몸담았던 리복과 다른 부분입니다.”

앞선 러닝화

2017년은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리복이 러닝화 분야로 돌아오기 시작한 해로 기록될 지 모르나, Daley



▲ 순발력 운동 및 스피드 훈련을 위한 새로운 \$100짜리 신발

는 지난 수년 동안 이를 위한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우리가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게 될 때까지는 몇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한결같은 운영을 통해 그 방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라고 Daley는 말한다.

“우리는 이 영역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가 진지하게 오랫동안 그려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은 직원이 전문가로 보이는 선별된 환경이기 때문에 러닝화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Daley는 말한다.

그러나, 전문 분야에서 리복이 집중하는 것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다. 리복이 모든 전문 분야에 들어가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합한 파트너를 만나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0년에 나퍼빌 러닝 컴퍼니(Naperville Running Company) 본점을 오픈한 이후 계속 리복 상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Hartner는 말하기를, 리복이 대단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며 그 채널을 위해 긍정적인 거래 조건들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들은 갈구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Hartner는 말한다.

러닝 전문 채널에 대한 서비스 외에, 리복의 장기적인 성공은 보스톤항에 위치한 새로운 본사가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 혁신적이고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달려있음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제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의 뿐만 아니라, 리복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어요.” 라고 Daley는 말한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플로트라이드런과 함께 리복은 이번 6월에 100그램짜리 플로트라이드런 패스트프로(Floatride Run Fast Pro)를 다음 신발로 공개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3월 1일에는 리복은 금액은 \$1000이고 균형잡힌 가벼운 무게로 구성하기 위해 설계하고 내구성과 안정성 갖춘 패스트 플렉스 위브(Fast Flexweave)를 공개했다. 특히 이는 순발력 운동과 스피드 훈련을 위한 제품이다.

이 브랜드는 또한 신발 산업계 밖의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이 제품의 쿠션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 동안 혁신적인 제품에 전념할 것입니다.” 라고 Daley는 말하며 신발은 리복의 즉각적인 집중대상이나 의류는 “준비 중”이라고 덧붙인다.

“우리는 오늘날 리복의 흥미로운 제품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리복에서는 볼 수 없었던 러닝화예요.” 라고 Rubio는 말한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록, 러닝화 시장은 우리로부터 가치를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적합한 리테일러들에게 의미있는 파트너가 되어 그들에게 엄청난 중요하면서도 잘 대해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리복 총매니저 Scott Daley

산업 전기 공사 전문 PT. YUCOM SANJEN

기술에 혼을 담다!

PT.YUCOM SANJEN은 16년의 인도네시아 산업현장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PLN 신설 및 증설 전기 / 계장 / 수, 변전 설비 고, 저압 / 역률방지 / PLC / CONTROL PANEL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0 222 / 5982 666 Fax : 5984 666
김중환 : 0815 930 1026 E-mail : hatibuka95@gmail.com

인니, 선거 앞두고 에너지 가격 동결...조꼬노믹스 뒷걸음 BMI리서치 “조꼬위, 인기영합적 조치로 개혁 후퇴” 비판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는 등 인기영합적 정책을 펼치면서 ‘조꼬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개혁이 뒷걸음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 에너지 보조금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5.1% 많은 25조3천억 루피아(약 2조원)를 지출했다.

보조금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판매로 작년 한 해 동안 국영석유회사 프르타미나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 주면서 지출이 급증한 결과다.

이런 추세는 에너지 전반의



▲ 2018년 4월 8일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오토바이를 몰아 서부 자바주 수카부미 인근 농촌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현장에 돌아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 가격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르짚드라 따하르 에너지 광물자원부 차관은 이달 9일 기자들을 만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도 항공유나

산업용이 아니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류 품목에 대해선 지급껏 석유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지난달 초에는 보조금 경유와 휘발유, 내수용 석탄의 가격과 전기료를 내년까지 동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르짚드라 차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계소비지출을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BMI리서치는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조꼬위 대통령이 일련의 인기영합적 조치로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가격을 동결해 관련

국영기업의 적자 폭이 커지면 보조금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프라 투자 등 다른 국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유류 보조금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연간 25조원 규모로 정부지출의 20% 가량을 차지한 채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올해부터는 인프라 관련 정부지출을 전년도 수준(연간 410조7천억 루피아·약 32조원)으로 유지하면서, 사회 및 인적자본 개발 투자 비중을 높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4월 17일로 예정된 총·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부 자바의 빈민 가정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개혁 정치인인 조꼬위 대통령은 올해 초 투쟁민주당(PDI-P) 대선후보로 지명돼 재선 도전이 확정된 상태다.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어)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블랙 포니를 테마로 한 나이키 '애니멀 컬렉션'



스니커 편집숍 '아트모스(atmos)'는 2006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나이키 에어 맥스 '애니멀 팩'의 2.0 버전으로 블랙 포니를 도입한 '에어맥스 1 DLX'와 '에어맥스 95 DLX'를 판매한다.

슈즈 관련 아이템으로 나이키 스포츠 웨어의 파커(9000엔+소비세)와 티셔츠(5000엔+소비세), 아트모스 라보의 티셔츠(4500엔+소비세)와 캡(5000엔+소비세), 제이슨 마크의 프리미엄 클리너(3600엔+소비세) 등을 동시에 전개한다.

3월 25일부터 아트모스와 스포츠 라보 바이 아트모스의 일부 점포에서 판매된다.



OR+ 스노우 쇼에서 주목할만한 점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덴버에서 열린 OR+ 스노우 쇼는 획기적인 박람회였다.

매진된 OR+ 스노우 쇼는 아웃도어 리테일러, SIA 스노우 쇼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포맷으로 박람회를 개최했다.

아웃도어 리테일러가 주최하고 DJ Matt Cassidy, JAUZ, 가수 Mac Miller가 공연하는 패션 쇼는 1월 26일 금요일에 개최되

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패션쇼는 다음 시즌 아웃도어 및 겨울 스포츠 동향을 미리 볼 수 있었다.

박람회 추천 코너 모험: 현대적인 아웃도어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조명한다. 레인저 스테이션을 방문해 트렌드를 살펴본다. 럭셔리: 프리미엄 겨울 및 아웃도어 의류 코너에서 색다른 경험을 해본다.

스칸디나비아 마을: 스칸디나비아 브랜드의 에너지, 다양성, 문화를 알아본다.

렌탈 월드: 알파인, 스노우보드, 크로스컨트리 렌탈 장비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캠핑: 수준 높은 캠핑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산업 트렌드를 알 수 있다.

트렌드 + 디자인 센터: 디자이너와 R&D 종사자를 위해 혁신적인 소재와 제조 기술을 선보였다.

아웃도어 리테일러 담당자 Marisa Nicholson은 "박람회는 활기차게 성장할 것이며 제품 발굴과 겨울 브랜드에 이만한 행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이벤트, 교육으로 아웃도어 커뮤니티와 소통할 것이다."

출처: Outdoor Insight



Saucony, 창립 120주년 기념



▲Shadow 5000 EVR

이번 달 창립 120주년을 맞은 러닝화 브랜드 Saucony가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Saucony의 첫 번째 신발은 1898년 펜실베이니아주 쿠틀라운에서 제작되었다. Wolverine Worldwide Group의 자회사인 Saucony의 이름은 이 지역을 흐르는 서코니 강에서 따왔다.

"올해는 직원 모두가 지난 120년간 달성한 목표를 기념하고 서로의 헌신을 축하하는 특별한 해가 될 것," 이라고 Sau-

cony의 마케팅 담당자 Amanda Reiss는 말했다. "우리는 최고의 장비를 신고 달리는 경험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러너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Saucony는 Everun과 Isofit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동시에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Originals Collection에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120주년을 맞은 2018년에는 많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3월 초, 1980년대 처음으로 출시된 Shadow 5000의 업데이트 버전인 Shadow 5000 EVR(사진)이 발매되었다.

업데이트된 버전은 Everun 쿠셔닝 미드솔, 통기성 니트 어퍼, 가죽 힐 카운터를 탑재했다. 한정판 모델인 Shadow 5000 EVR은 Saucony의 웹사이트와 특정 유통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처: footwearbiz.com



Muller의 새로운 브랜드, 미국을 움직인다

1997년 Karl Muller는 MBT 라커 솔을 설계했다. 20년 뒤, Muller의 최신 아이디어 브랜드 kyBoot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kyBoot은 2007년 별집 디자인을 사용한 가벼운 에어 쿠션 밑창을 콘셉트로 개발되었다. 발과 지면 사이에 에어 볼륨을 20% 주입한 제품이다.

브랜드의 총 매니저 James Taylor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좋은 자세를 유지하며 관절과 다리 정맥의 압박을 완화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Ascona



▲Cirrus JFK



▲Nyon



▲St. Gallen

"신발은 치료 효과가 있다," 고 Taylor는 말했다. "족저근막염, 신경 통증 및 부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kyBoot 라인은 100가지 넘는 스타일을 포함하며 평균 가격은 켈레 당 \$400이다. kyBoot는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유통

업체가 제품을 입고하기 전 kyBoot는 Muller와 온라인 회의를 마련하여 브랜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제품이 입고되면 새로운 유통 파트너는 이틀간 트레이닝을 받는다.

"제품과 기술을 이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한다."

kyBoot는 미국 유통 시설을 2014년 말 개장했다.

10개의 새로운 유통 채널이 올봄 개장할 예정이다.

출처: Footwear Insight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귀)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더 다양한 색상의 아디다스 디러프트(Deerupt) 출시

아디다스 오리지널이 새로운 브랜드 디러프트 실루엣으로 데뷔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러닝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의 두 가지 새로운 컬러웨이를 더 출시하면서 이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다.

디러프트는 3월 22일 “솔라 버드”에서 \$100에 론칭되었는데, 대담한 빨간색과 파란색 색채를 실현하고 밝은 색상을 강조하도록 디자인을 한 신축성 있는 흰색 네트로 덮여 있다. 곧바로 세 가지 컬러웨이가 더 나왔다.

이제 아디다스는 두 가지 컬러웨이를 4월 12일에 더 출시할 계획이다. 바로 “Aero Pink”와 “Bluebird”이다.

아디다스 웹사이트와 리테일 스토어에 새로운 색상을 \$100 가격대에서 출시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처음 아디다스에서 내기로 한 색상보다 더 많은 선택



▲기존 아디다스 디러프트 “Aero Pink”



▲아디다스 디러프트 “Bluebird”



▲아디다스 디러프트 Aero Pink



▲아디다스 디러프트 “Bluebird”

백권을 갖게 되었다. 디러프트는 10년 전 아디다스의 러닝화 브랜드의 유산인 그리드 디자인을 가져온다.

도시계획, 건축 및 자연과 같은 것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래된 것을 새롭게 받아들여, 그리드 컨셉은 스트레치 메쉬로 중심 윗면 전체 부분을 완전히 덮어 디자이너들이 색상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축성 있는 윗 부분은 압축된 착용감을 위해 메쉬와 조합을 이룬 디자인이 미드솔로 이어진다.

신발 끈을 끼는 부분들과 삼엽 모양의 아디다스 로고 문양이 새겨진 힐 패치가 있는 윗부분을 감추게 되는데 이것은 고무로 된 아웃솔 맨 위까지 적용된다. 직물 감촉, 레이어 및 투시감을 이용해 접을 수 있는 러닝화로부터 영감을 얻은 디자인은 신발 내부 라이닝을 따라 구역별로 폼 포켓이 들어가 있는 경량 구조가 특징이다.



VF 기업, Altra 브랜드를 매수하다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스마트울(Smartwool), 팀버랜드(Timberland), 반스(Vans)의 모회사인 VF 기업은 최근 제로 드랍(Zero Drop) 신발 디자인으로 경쟁이 심한 러닝화 사업을 강타했던 알트라(Altra) 브랜드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에 임박했다. 이 브랜드는 아이콘 헬스/피트니스(ICON Health & Fitness)가 2011년부터 소유해 왔다.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알트라는 2011년 Brian Beckstead, Jeremy Howlett, 그리고 Golden Harper에 의해 론칭된 이래로 러닝화 시장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브랜드가 되었는데, VF는 바로 이 브랜드를 인수한 것이다. (Golden은 특히 유타주 오렐에 있는 러닝화 전문 스토어 ‘러너스 코너(Runner’s Corner)’의 주인인 Hawk와 Cheryl Harper의 아들이다.)

처음 알트라 신발의 컨셉은 2009년에 이 세 인물들이 기존 러닝화의 뒤꿈치 부분을 깎아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제로 드랍(zero drop)”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Harper는 브랜드 이름을 라틴어 “알테라(altera)” -고장난 무엇인가를 고치거나 수리한다는 의미-를 따서 “알트라(Altra)”라고 정했다.

알트라 브랜드는 미시간주에 있는 플레이메이커스(Playmakers)와 같은 얼리어답터 스토어들에 들어갔고, 브랜드 창립자들은 2011년 아이콘(ICON)에 매각을 하면서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대기업의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오늘날, 알트라는 전세계 55개국의 1,600여개의 전문 매장들을 통해 연간 534.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VF사의 CEO이자 대표인 Steve Rendle은 “알트라 브랜드를 인수한 것은 우리의 기업 가치 창출 모델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의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활동적인 아웃도어 및 기능성 제품 분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력적인 큰 분야입니다. 이 브랜드는 VF의 아웃도어 신발, 직접 소비자 및 국제 플랫폼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 기업에 성장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ICON의 임원들은 알트라의 판매로 당사의 핵심 피트니스 브랜드인 노르딕 트랙(NordicTrack), 프로폼(ProForm), 프리모션(Freemotion) 및 피트니스 가임 브랜드(온라인으로 관리해주는 기술 브랜드)인 아이핏(iFit)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말했다.

[대사관 안전 공지] 국제 물품사기 주의

최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를 사칭한 물품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범죄수법

- 중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 업체로부터 원자재(가성소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함

- 중국 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의 포장지를 사용하였으나, 내용물은 가성소다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저가의 소금을 채워서 발송한 후 연락 두절됨.

국제거래의 특성상 피해를 당할 경우 용의자 검거 및 피해금액 회수가 상당히 어

려우므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해외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그 회사의 기존 거래내용, 재정상황, 신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모르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대사관 긴급 당직전화(야간, 휴일) :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체험 연수」 참가자 모집공고

경상남도는 재외교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경남의 명승 고적을 탐방하는 등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모국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 기 간 : 2018. 7. 23.(월) ~ 7. 27. (금) [4박 5일]

○ 장 소 : 경상남도 일원

○ 모집인원 : 전체 30명 내외

○ 참가대상 : 재외교민자녀 중 · 고등학생

○ 주요내용

경남의 명승고적지, 박물관 등 한국 역사 탐방
한과 만들기, 매듭, 다도 등 전통 문화 체험 및 예절 교육

경남 주요 산업시설 방문 등
○ 비용부담 : (경상남도)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체재비 (참가자) 왕복국제항공료, 여행자보험

2. 지원자격

○ 거주국적자, 영주권자,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자녀 등의 자격으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 합숙연수(강의, 여행 등)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최근 3년 이내 동 연수 사업 미참가자

3. 신청 및 선정

○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 (소장 이동훈, 0812 1066 7402)

○ 참가자 선발은 경상도청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비계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은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체층 8mm Polyethylene Foam 열전차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 x 25mm)
3. 35mm Spandek (920 x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x 110 x 225)
5. Genteng Metal (기 와) (82 x 35 x 20)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설비는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전차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직재로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MAXX
BOX
LIPPO VILLAGE

Korean Festival

10 - 13 May 2018 | 10AM
At Main Atrium, Ground Floor

행사안내

자이안트 비빔밥 쿠키	10 May 2.30PM
한국 전통 무용	10 May 3PM & 12 May 7.30PM
난타 퍼포먼스	10 May 3PM & 12 May 7PM
한국 음식 시식회	11 May 4PM
사생대회	12 May 2PM
Robocar Poli 포토존	12 May 2.30PM & 5PM

전시회

한국 길거리음식 & 스낵 | 한국 관광 소개
Beauty & Healthcare | Language Class
VR Game

행사 문의

허미숙 - 0812 8199 9542 (WA)

Organized by: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 한인회
KOREAN BANTEN ASSOCIATION

Supported by: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KOREA
TOURISM
ORGANIZATION
www.visitkorea.or.kr



아름다운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한국콘텐츠진흥원

BOOKS & BEYOND

Imagine
your
Korea



해외 한식당 자카르타 협의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Maxx Box Lippon Village | Boulevard Jend. Sudirman 1110 Lippon Village 1200, Tangerang 15811

© 021 2917 1888 | MaxxBoxLV | www.lippomalls.com

Managed By:

LIPPO MALLS